

사순절 「사랑의 헌금」 취지서

올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선택은, 함께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세계경제도 크나큰 영향을 받아, 빈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버렸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8월19일의 일반알현에서, 「사회 안의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 가난한 이를 사회의 주변으로 몰아내는 행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의 결여」를, 「보다 더 큰 바이러스」로 지적하셨습니다. 팬데믹 하에서, 안타깝게도 격차는 확대되고, 배척되어지는 이, 잊혀지는 이는 더욱 늘어나고, 감염증과 격차확대라는 두가지의 큰 요인으로 인해 생명은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서로 도우며, 따뜻한 안에서의 연대를 이끄는 존재로서,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사순절의 헌금은, 사랑의 실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십일 간,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협력하셔서, 교회의 사랑의 실천에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재해원조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외에 있어 「생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들의 지원,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소수민족의 아이들의 교육지원과 여성의 자립지원 등을 위해, 사순절 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리타스재팬이 행하고 있는 지원은, 평소의 여러분의 모금에 의해 지탱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연간 지원금의 삼분의 일이, 이 사순절헌금에 의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기로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산다는 희망을 날기 위하여, 사순절헌금에 부디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2월17일 재의 수요일에
카리타스재팬 책임주교 타르치시오 키쿠치 이사오
담당주교 바오로 나루이 다이스케